

장학과 담론

- 02** 명사 칼럼 해결 못할 고민은 없다
- 04** 특별대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이사장-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지식과 인성 균형갖춘 知行一致 인재 길러내자”
- 10** 장학 현장 전국장학재단협의회 24時 - 동원육영재단
책꾸러기·라이프 아카데미, ‘인재부국’(人材富國) 이룬다

장학 투데이

- 14** 장학리뷰 신용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한번에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20** 이슈&트렌드 우리가 ‘로봇윤리현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24** 대학 탐방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찾아서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
디자인
- 28** 진학 가이드 2019학년도 대입 학습전략 어떻게?



한국장학 소식

- 30** 장학지원 수기 세상을 품어 내일을 달려라
- 32** 똑똑한 경제이야기 ‘믿을 건 돈 밖에 없다’고 믿는 당신에게
- 34** 재단 소식
- 36** 특특 장학상담실



한국장학리뷰 2018년 02월호

등록일자 2015년 6월 11일 변경신고 2016년 11월 30일 등록번호 대구동, 라00018 발행처 한국장학재단(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발행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편집인 정홍주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장

편집기획·문의 김홍재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연구총괄팀장·김은경 연구총괄팀 대리 (053-238-2660, 2664) 인쇄 매일피앤아이

<한국장학리뷰>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고등교육 장학지원 정책 및 제도를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무료로 배포하는 월간지입니다.

해결 못할 고민은 없다

오세복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나는 70년대 말에 대학생이 되었다. 체육교육과 학생이었던 나는 스키장이 몹시나 궁금했다. 당시 스키장은 강원도 평창이 거의 유일했다. 친구들과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스키장을 찾아갔다. 강원도 평창까지 버스 타고 가는 길도 불편했지만 도착 후 스키 타는 일은 더 불편했다. 리프트가 지금 같지 않던 시절이었고 눈도 지금 처럼 인공눈이 없던 시절이라 여러 조건이 열악했다. 당시는 실내 빙상장도 매우 드물었다. 지금

은 없어진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이 거의 유일한 대중 실내 빙상장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강설량이 부족하면 인공눈으로 스키장을 운영하며 스키장도 여러 곳으로 늘어났다. 실내 빙상장 또한 전국에 수십 곳이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인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겨울은 참으로 추웠다. 방안의 물이 밤새 퐁퐁 얼어붙는 경험을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방안의 물이 얼지 않고 스키장과 실내 빙상장이 많이 생긴 것은 아마도 경제·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결과이리라. 그 과정에 한국의 겨울스포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방안 물이 퐁퐁 얼어붙던 그 해 겨울의 추억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다. 2108년 2월 9일 개막하여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전지구인의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다. 올림픽은 우리에게 즐거운



축제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고민거리도 함께 주고 있다. 청년 실업, 불안한 국제정세 등의 미해결 문제가 산적한데다 적자 올림픽에 대한 걱정까지 겹쳐 잔치를 벌일 형편이 되느냐는 고민인 것이다.

적자 올림픽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올림픽을 통해 경제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런 대비 못지 않게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넉넉함도 필요하겠다. 세계 10대 무역국인 선진강국으로 인류에게 올림픽이라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준 우리 민족 아닌가.

다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류는 서로를 돕는다. 지진이 나거나 수해를 입은 외국에 구호물자를 보내거나 구조대를 파견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 이런 점은 지구촌 누구에게나 그리고 세계 선도 국가에 더 강하게 주어진 책무다. 20세기 중후반에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던 우리이지만 지금은 여러 나라에 원조를 보낸다. 게다가 세계 13위 정도의 무역 국가이고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9천 7백 달러에 이른다.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의 대한민국이 돈을 내어 인류평화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적자 올림픽이 되더라도 해결능력은 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경색되었던 남북관계, 북한과 세계와의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도 없지 않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올림픽에는 패럴림픽도 열린다. 인류애를 실현하는 장이 올림픽이기도 하다.

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은 15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참가국은 93개국이고 참가인원은 2,925명이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메달은 306개이다. 올림픽 정신은 공정한 경쟁이고 인류가 서로 우의를 다지고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어떤 메달을 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서 특정 메달을 딴 선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축하를 보내는 일은 나쁘지 않다. 메달의 색깔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던져 올림픽에 집중한 그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청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본다. 올림픽이 축제의 장이면서 동시에 고민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젊음이라는 빛나는 시간이 고민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점이 안타깝다.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비책이 없는 점에 속상하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을 보면 차라리 방안의 물이 쪼뽏 얼던 시절을 견디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과거의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와 실력으로 무장한 요즘 젊은이들, 빛나고 아름다운 청춘이기에 고민을 해결할 힘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겨준 임효준은 운동을 포기했어야 할 정도의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올림픽 쇼트트랙 1500미터의 메달은 세 명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젊은이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메달을 따는 동량이 되기를 희망한다. 🎓

“지식과 인성 균형 갖춘 知行一致 인재 길러내자”

안양옥 한국장학재단이사장-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글 _ 장재훈 기자



“단순히 돈으로만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 배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정신과 물질이 결합된 장학금이 되어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받아 대학을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고마움을 알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발전적인 승화가 필요한 것이죠.”

(안양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지식과 인성이 균형을 갖춘 전인교육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건전한 지식인을 길러내야죠. 실력 못지않게 인성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도량있는 교육을 기대 합니다.”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동원그룹 회의실에서 만나 한국 교육과 장학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장학금 지원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지식산업사회로 발전할수록 메마른 지성보다 가슴으로 행동하는 인재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토론과 협업,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원육영재단이 운영하는 라이프 아카데미 즉, 대학생 대상 전인교육 프로그램에 교육대학을 포함시켜 인성교육이 일찌감치 교육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기로 했다. 동원육영재단은 김재철 이사장의 뜻에 따라 지난 1979년 출범, 지금까지 6천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육 불평등 심각 ... 개천서 용나는 교육 아쉬워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하 안양옥)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고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이하 박인구) 얼마 전 직원 자녀가 미국 하버드대학에 진학했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기대를 갖고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답니다. 알고 보니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가난한 학생에게는 많은 재정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탄탄한 제도 덕분에 미국에서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적어도 기회의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우리는 대학에만 가면 대부분 장학금을 받습니다. 돈 없어 대학 못 가는 일은 없게 한다는 취지지만 너도나도 장학금을 받는 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과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평등하게 길러내





▲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교육부가 초등 교과서
한자교육 병기 계획을
폐지했다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한문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고
때때로 삶의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
내는 수월성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죠.

안양옥 국가장학제도가 하향평준화나 지나친 평등
주의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장학
금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상향평
준화 즉, 모두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
다. 문제는 돈을 많이 준다고 상향평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질적인 장학금도 필요하지
만 그와 함께 정신적 장학제도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
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장학금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주는 수단
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강화시켜 스스로 능력
을 계발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인구 정신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부가
초등 교과서 한자교육 병기 계획을 폐지했다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한
문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고 때때로 삶의 중요한 가치기
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가 갖는 정신적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닌가 싶어요. 머지않아 족보도 못 보고 묘비에 적힌 조상 이름
도 못 읽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언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영어교육 문제를 짚고 싶어요. 우리 스
스로는 영어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실상 공용
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된 것은 영어를 공용
어로 쓰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인터넷 번역기 수준의 관광용 영어가
아니라 저널을 읽고, 학문을 접하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영어가 체화
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동북아에서 우수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국제 언어인 영어를 통달하고 한자교육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학자금 지원보다 책꾸러기 등 인성교육에 비중

안양옥 영어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교육도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특히 학생들의 메마른 언어습관은 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를 놀라게 하는 학생들의 폭력도 따지고 보면 인성교육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침 동원육영재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큼니다.

박인구 우리 동원육영재단은 지난 1979년에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장학금 받은 학생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초창기에는 장학금 지급에 중점을 뒀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부나 대학, 민간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아졌기에 학자금 지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다양한 장학 사업을 벌이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 6

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책꾸러기’ 사업입니다. 지난 10년간 110만권 정도를 어린이와 부모에게 보냈는데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작년부터는 라이프 아카데미를 개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인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과 인성을 갖춘 건전한 지식인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현재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부경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1인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사회 저명인사와 대학생들을 멘토와 멘티로 엮어주는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아요. 동원육영재단 역시 라이프 아카데미와 같은 사회 공익 사업을 하고 있단니 반갑고 기쁩니다. 민간 장학재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박인구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라이프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협업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보자는 취지였죠.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사는 치열한 경쟁에 숙달된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배려, 공감, 협력 등에는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물질적인 장학금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신적 장학제도가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장학금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무감각해진 게 사실 이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라이프 아카데미가 대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큰 효과를 거뒀어요. 올해는 참여 대학을 10여 개 정도로 늘려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안양옥 멘토링 사업은 일종의 사회에서 만나는 담임선생님 제도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멘토링 사업을 민간 장학재단들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이프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인성교육의 최 일선 현장은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아이들의 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단에 서게 될 예비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 교사 임용시험이 말 그대로 문제 잘 푸는 학생 선발시험으로 전락된 경향도 없지 않는 만큼 교사양성 대학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구 저도 젊은 시절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박 부회장은 대학 졸업 후 준교사 자격으로 교사 생활을 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직을 떠났다). 교단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대학 등 예비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투자를

안양옥 동원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활동에 참여해 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작은 단위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인성교육 한 번 해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동원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도 인간존중에 있더군요.

박인구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지식 위주 암기 교육에만 치중한 탓에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지 못했을뿐더러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물질만능의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먹고살기 나아지고 좋은 교육도 많이 받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지수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전한 지식인을 기르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과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알려주는 정확한 나침반을 갖게 한다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양옥 동원그룹은 우리나라 성장 신화의 상징입니다. 파독광부(派獨鑛夫)와 간호사, 중동 건설 근로자와 함께 원양어업 종사했던 선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5대양 곳곳에서 거친 파도와 싸웠던 원양어선 선원들이야말로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인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정말 우리 세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많은 희생도 따랐지요. 몇 년 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희생이 많았던 분들이 원양어선 선원들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68달러에 불과했던 그때, 가밭과 참치만 수출할 수 있었던 그때,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분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평양 사모아라는 섬에 가면 바다에서 숨진 한국인 선원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발전 원동력 된 원양어선 선원들 희생 잊지 말아야

안양옥 그 험난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기업이 이제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2세 교육에 기여하고 있군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박인구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익 재단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요. 이리다간 ‘공익 재단들이 다 문닫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몇 년 전 제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10%를 3년에 한 번씩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앞장선 적도 있어요. (정부가) 공익 재단에 자율을 줘야 합니다.

안양옥 공익 재단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는 게 곤란하면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장학재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도 좋고요. 예컨대 ‘전국장학재단협의회’와 같은 협의체에 일임하면 좀 더 발전적인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과 관이 서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익 재단의 숭고한 뜻을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책꾸러기·라이프 아카데미, ‘인재부국’(人材富國) 이룬다

전국장학재단협의회 24時 - 동원육영재단

글_ 김민정 기자



지난 1979년 설립된 동원육영재단은 지금까지 약 6천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내 우수대학과 연구 단체의 과학기술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이념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재육성이라는 큰 방향에 따라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회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

대표적으로 바다사랑과 지구사랑,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와 동원컵전국유소년축구리그, 동원글로벌익스플로러를 운영했으며, 현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꾸러기’ 사업과 대학생 전인교육 프로그램 ‘라이프 아카데미’ 등이 있다.

2007년 5월 시작한 동원육영재단의 어린이 도서 지원 사업인 ‘동원 책꾸러기’는 IQ, EQ, CQ의 고른 발달을 통해 인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엄마와 아이의 책 읽기 캠페인이다. 부모와 자녀가 책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줘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신념에서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한 달에 10~20권의 책을 읽는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



▲ 동원정보고관 개관식

래가 보인다(2000년)’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편지글, 기행문 등이 초·중·고 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바 있다.

동원육영재단은 ‘동원 책꾸러기’ 사업을 위해 연간 약 1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0만 권이 넘는 그림책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원 책꾸러기’를 통해 책을 받아보고 싶은 가정은 매달 20일까지 그 달의 추천도서 20권 중 하나를 골라 인터넷 홈페이지(www.iqeqcq.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0일까지 신규 회원을 접수하고 당첨된 경우, 1년간 원하는 책을 매달 말 일경에 집으로 보내준다. 또 그림책을 받아 아이에게 읽힌 부모가 그 활용법과 효과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우수 가정 한 곳을 뽑아 그림책 100권과 책장을 선물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하며, 단순한 그림책 신청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통한 육아 방법, 영유아 심리상담, 해외 교육정보 등 육아 커뮤니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동원육영재단 관계자는 “책꾸러기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알게 하고 꿈을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며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욱 값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 동원 섬김의 리더십 장학생캠프

대학생 전인교육 프로그램, '자양 라이프아카데미'

'자양 라이프아카데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전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편적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성과 인성이 조화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양(滋洋)'은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아호로, 자(滋)는 '자라다, 번성하다, 증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양(洋)은 '큰 바다, 거센 파도'를 뜻한다. 자양은 큰 바다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바른 인재를 키워 큰 세상으로 내보내겠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기를 운영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1기에는 41명의 대학생이 지원해 참여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동원산업 빌딩에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다. 주로 오전 시간에는 문학·역사·철학·예술 등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며, 오후 시간에는 학자·기업인·예술가 등을 초빙해 케이스 스터디·현장 탐방 등 체험성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1기에는 윤세웅 세계 자연기금 한국 대표, 유성환 박사,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권희민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리더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과정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한인 동문회가 후원하며, 국내외 2학년~4학년 대학생(휴학생 포함)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의 취지에 공감한 국내 대학들도 '라이프 아카데미' 과정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미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조선



▲ 동원 책꾸러기 2주년 기념



▲ 와글와글 책꾸러기(안도현 시인)

자양 라이프아카데미의
취지에 공감한
국내 대학들도
‘라이프아카데미’ 과정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미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부경대, 조선대가
라이프아카데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우수 대학들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가 라이프 아카데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우수 대학들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 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

동원그룹은 1979년부터 미래의 주역인 학생을 발굴, 육성하는 장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동원육영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섭(부경대 총장), 방하남(전 노동부 장관), 이준보(전 대구고검장), 이지환(카이스트 교수), 정연훈(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인 동원육영재단 장학생 출신이다.

한편 1980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을 시초로 고려대·연세대·전남대·부경대·조선대·한국외대·국립수산연구원·국제사법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등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후원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1996년 서울대 동원 생활관 건축금 기부, 2005년 부경대 동원기술연구재단, 전남대 동원장학재단 설립, 2007년 한국외대 동원그룹 리더십 장학재단 설립, 고려대 글로벌리더십센터 건축금 기부, 2010년 부경대 동원장보고관 건립 등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및 각종 교육기자재 지원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



신용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한번에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글_ 이창건

한국장학재단
상환지원부 상환지원팀장

무담보, 무신용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입학한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력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 시점을 6개월로 설정하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정기적인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14% vs 42%. 부실채권 회수에 정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율과 정부보증 부실
채권의 누적 회수율이다. 지난 2014년 매각대금까지 합치면 42%라는 숫자는 49%까
지 올라가게 된다. 만약 당시 매각하지 않았다면, 행복기금의 회수율을 고려할 때 누적
회수율은 50% 중반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부실채권
이외에도 2010년 이후 발생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부실채권도 불과 8년 만에 41%
에 달하고 있다. 담보를 회수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누적 회수율은 37% 수준으로 무담
보인 학자금 대출채권의 회수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외부에서는 재단의 부실채권 회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대출받다 보면 수 천만 원에 달하게
되고, 그들이 취업하더라도 수입이 많지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못 받게 되지 않느냐’는
막연하거나 개인적인 추론인 것이다. 물론 재단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높은 것은 재단이
높은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만
큼 성숙한 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채무자의 높은 상환의지와 잠재력

무담보, 무신용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입학한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력 및 특수성
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 시점을 6개월로 설
정하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정기적인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취급된 2005년 이후 이듬해부터 부실
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6년 최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1억 원 규모로 이 중
재단에 직접 회수된 금액은 2017년 현재 70% 수준이며, 매각 및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인한 상각 등을 고려하면 현재 95% 이상 직접 상환되거나 면책된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이라는 변수가 없는 2014년만 보면 더욱 희망적이다. 2014년에는 721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나 이 중 314억 원이 상환되어 불과 만 4년 만에 44%가 회수되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현재 분할상환 약정 중인 채무자의 경우 80%가 소득·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정을 통해 매월 소액으로라도 성실히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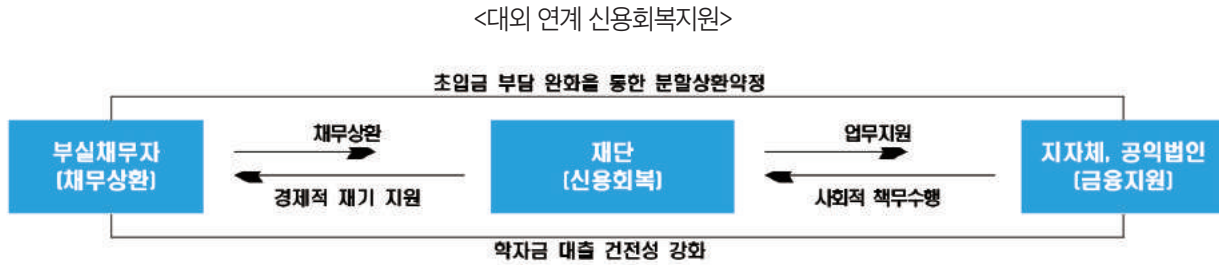
또한 약정을 통해 완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불과 3년 만에 이뤄졌다. 부실채무자라면 상환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비록 모든 채무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다수의 채무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정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그 이후 3년 안에 완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담보 부실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다수의 채무자가 저연령이라는 점과 그들의 채권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채무자의 73%가 34세 이하, 88%가 39세 이하의 젊은 청년층으로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75%가 1천만 원 이하, 92%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 소득만 생긴다면, 오래지 않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기회만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수의 채무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정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그 이후 3년 안에
완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는 이들 채무자들에게 좀 더 많은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채무자 중심의 포용적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따라서 재단은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상환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 3개월 이상 시점에서 조기에 분할상환 약정을 맺도록 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미처 프리워크아웃을 맺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 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집중해야 하나, 취업난 및 졸업을 유예하는 시류를 반영하여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등록유예’ 제도를 통해 경제적 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채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시 약정 당시의 대출조건으로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는 ‘정상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채무액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약정제도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적 배려계층,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손해금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중에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학자금 완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과 연계하여 부실채무자의 채무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대구시·울산시·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300명에 달하는 부실채무자의 채무액 일부를 지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도록 하는 ‘대외 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선순환 상환 구조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지방법원의 ‘패스트 트랙’ 제도를 지원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인가 조 기결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안내하여 소득 증대에 기

<소득 재산 조사 및 활용>

구분	조치사항 및 활용
주민등록정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거주지, 거주상태 등)를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부실채무자 관리 업무에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발생 사실 통지, 부실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를 통한 채무정리 유도
지적 건축물정보 (국토교통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여 회수 실익을 검토하여 채권보전조치 실시
임금·직장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 정보로 채무자의 직장 및 임금정보를 확인하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중인 채무 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채권 회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및 약정체
결 관리 및 상환금액 회수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40명에 달하는 전문 상담원들이 채무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채무
자의 경제적 상황을 진단하여 주고, 경제활동 계획 및 현재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약정 조건을 조언하여 주며,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련된 내용도 안내하여 주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수집된 공공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회수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집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체 점검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이용 실태조사에서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관련 정보 연계를 고도화하여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으며, 재단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전산개
발을 통해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자별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채무승인 제도 및 전자소송 등을 통해 채무
자 부담 비용 발생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대
출을 포함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자별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해
채권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채무승인 제도 및
전자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 부담
비용 발생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 약정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만 약정을 신청해도 우리 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제도와 연계되어 즉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제도의 만족도도 상승될 것이다.

장기연체자 맞춤형 지원과 회수관리 강화

학자금 대출의 지속 가능성은 부실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속적인 상환관리 노력에 힘입어 2015~2017년의 발생액은 2012~2014년 부실채권 발생금액에 비하면 58%까지 떨어졌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05~2009년 총 공급액 7.9조 원 중 미회수된 금액은 부실을 포함하더라도 이제 0.4조 원 밖에 남지 않았다. 부실채권 잔액 역시 2016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부실채권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부실채권이 이미 역전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실채권의 관리방향도 장기 연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촘촘한 회수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자금 대출은 최근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대출자의 성향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발생액도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바 있어, 전체적인 부실채권 회수율이 개선되고 있다 하여,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실채권 회수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융합장학지원체계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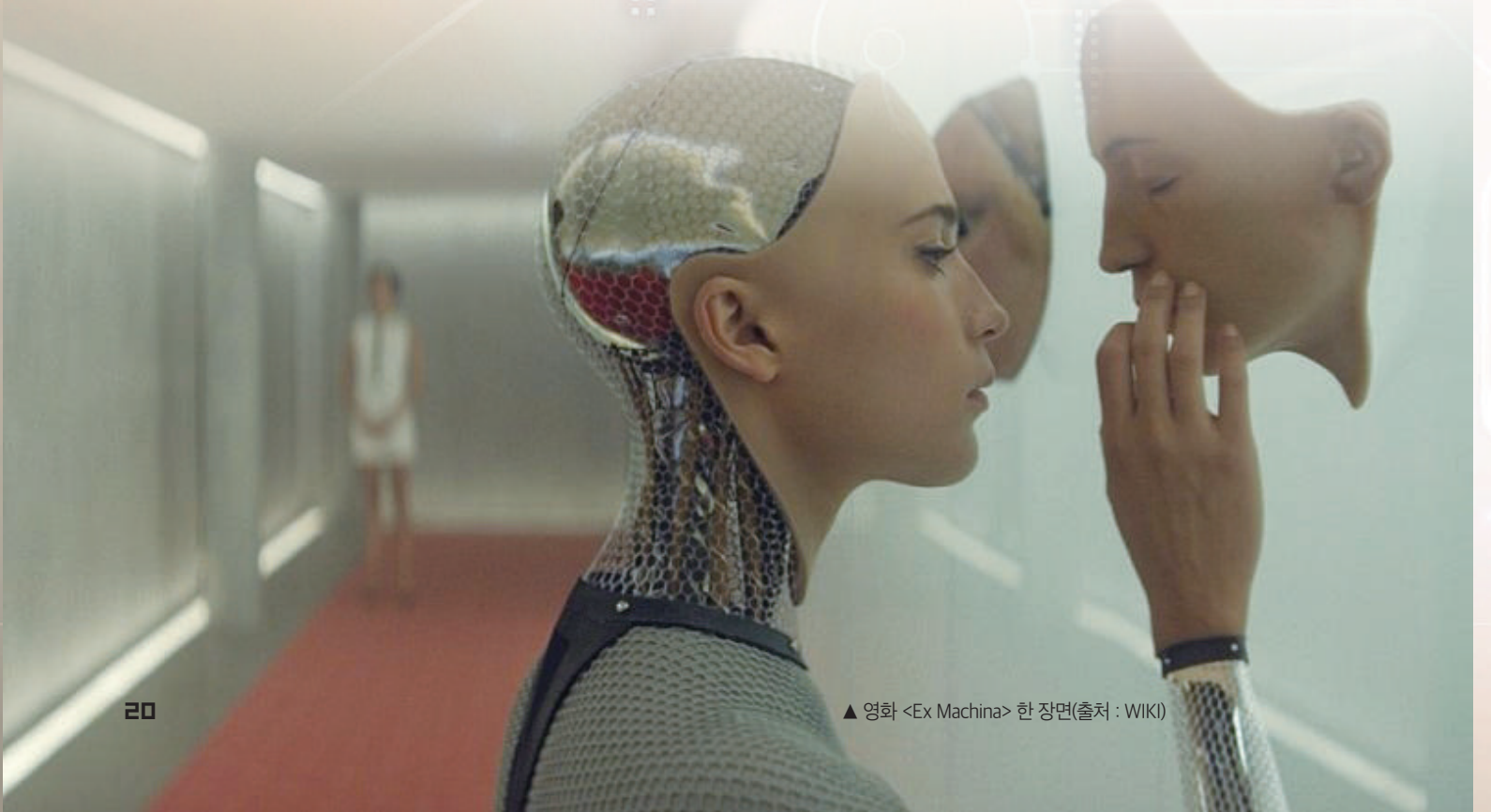
우리가 '로봇윤리헌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들풀

IT NEWS 편집장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지능정보기술 관련 인적,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지능정보기술 전반에서 선진국 대비 격차가 있다고 판단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가 지능정보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 인간만이 가능했던 인지, 학습, 추론 등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을 IT 기술을 통해 공장자동화 로봇, 간병 로봇, 무인자동차, IT 디바이스의 개인비서 등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결국, 지능정보기술은 IT 산업의 혁신을 넘어 생산방식, 시장구조, 생활양식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끈 것이다.



이미 지능정보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SW 주식거래 등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보조하는 IBM 왓슨 헬스 등 의료분야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공장자동화 등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번역 및 언론사의 로봇 기사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미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기계 대 인간의 경쟁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심하게는 기계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계가 인간의 통제 아래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봇 윤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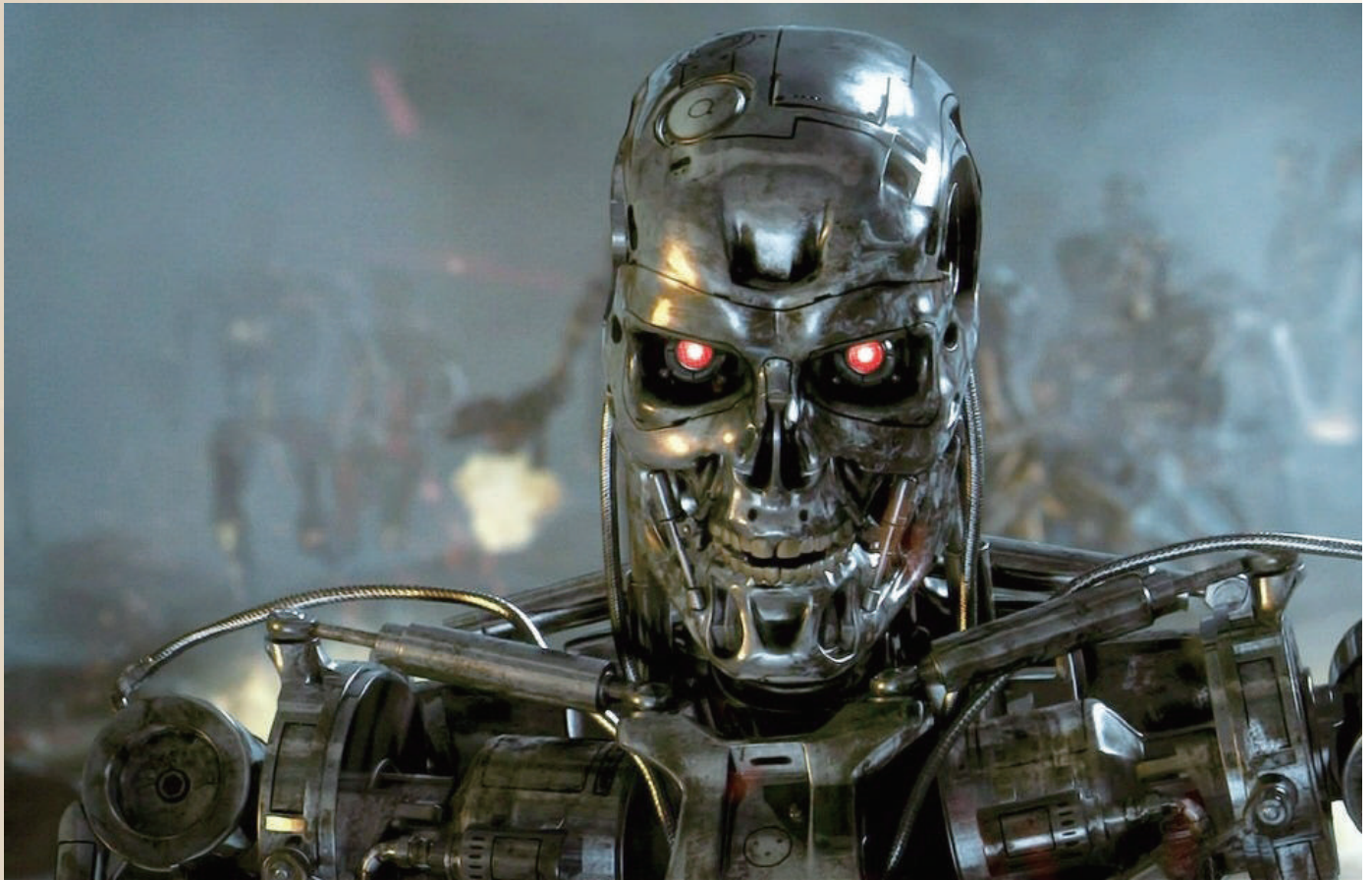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최근 개발된 로봇 기술들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기계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 중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개발 및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을 마련해 외부에 발표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인간을 위한 로봇 윤리헌장

카카오 AI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는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카카오 AI 기술의 지향점, 결과의 의도적 차별성 방지, 윤리에 근거한 학습 데이터 및 수집 관리 원칙 등이 담겨 있다. 알고리즘 관리의 독립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방침도 포함돼 있다.

20년 전인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로봇윤리헌장 제정위원회'를 결성하고 세계 최초로 로봇 제조부터 사용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7장에 걸쳐 담은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만들었다. 이 로봇윤리헌장은 로봇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 과학자, 윤리학자, 종교학자, 의사, 심리학자, 변호사, 미래학자 등 각계 인사 12명을 중심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런 모든 작업을 정부가 지원한 매우 뜻깊은 사업이었다.

카카오 AI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는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카카오
AI 기술의 지향점,
결과의 의도적
차별성 방지,
윤리에 근거한
학습 데이터 및
수집 관리 원칙 등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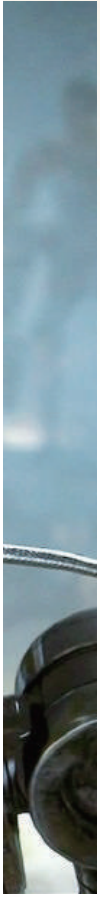


▲ 영화 <The Terminator> 한 장면(출처: WIKI)

이 로봇윤리헌장 초안에는 ‘인간과 로봇은 상호 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인간과 로봇의 공동 원칙에 따라 인간과 로봇 상호 간의 선한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한다’ 등 세부 조항이 마련됐다. 즉, 로봇윤리헌장이 내다보는 미래는 먼저 인간은 로봇을 만들고 로봇은 인간이 편하게 살도록 돕는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당시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작성한 차원용 박사는 “로봇은 인간과 동격이 아니라 협력자나 공존자로 한 단계 낮은 존재지만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 로봇에게 정중히 대할 때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만든 강아지 로봇 학대 사건이다. 이 로봇은 살아 있는 강아지처럼 인간의 태도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지만, 강아지가 가끔 반응하지 않고 오동작을 일으키자 어린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본 부모가 불매운동을 벌였다”며 “결국 모든 문제는 인간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규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를 받은 로봇윤리헌장 초안은 로봇윤리헌장 제정으로 인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멈춰 서 있다.



“로봇은 인간과 동격이 아니라 협력자나 공존자로 한 단계 낮은 존재지만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 로봇에게 정중히 대할 때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지기 때문이다.”

당시 초안 내용이 로봇과 인간의 관점에 따라 산업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로봇윤리헌장 제정 속도를 늦추고 좀 더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헌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최근 개발된 로봇 기술들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 즉,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기계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대목이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보쉬(Bosch) 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015년 10월 22일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무인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보행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벽 쪽으로 꺾어 차 주인을 희생할 것인가? 이런 윤리적 문제해결에 무인자동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한 편의 논문을 소개하며, “누가 주인을 희생시키는 자동차를 살 것인가”라고 전했다. (논문명: Autonomous Vehicles Need Experimental Ethics: Are We Ready for Utilitarian Cars?)

보행자냐? 운전자냐? 무인자동차의 선택은

보쉬(Bosch)사는 2018년 초에 제작되는 신형 차량에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애매모호한 행동이 보행자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 보호 시스템에는 이 같은 알고리즘과 중장거리의 레이더 센서,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 개발 등이 윤리적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다.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는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윤리적 문제 해결 기준이 가장 시급한 시점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은 20세기 초만 해도 과학기술이 윤리와 무관하다고 믿어 왔지만, 20세기 말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윤리가 돌아와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을 담음으로써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모든 과정과 성과가 인류에게 혜택뿐 아니라, 고통과 죽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2016년 1월에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제정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제라도 지난날 솔솔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찾아서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 디자인

글_ 김민정 기자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 분야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은 물론 8개 작품이 수상을 휩쓰는가 하면, 취업률이 매년 75%에 육박한다. 그 비결은 바로 플랫폼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산학협력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대구대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철저한 실무 중심 교육에 있다.



▲ 계절제 혹은 학기제 학생 기업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소외계층 없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대구대의 실무중심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실무중심교육과는 전혀 다른 특별함이 있다. 이공계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산학협력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소외계층 없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일부'가 아닌 '모두'로 변경했다. 이공계열 학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까지 포함하는 98개 전 학과를 산학협력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산학협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까지도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패러다임 구축의 시작이었다.

더불어 산학협력을 산업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해 대기업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과 여성 및 1인 창업자 등으로 확장시켰다. 대학교육이 보유하고 있는 비기술적 자산을 평가·이전·보상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성장지원·인문지식으로 고도화된 기술협력·가치를 창출했다. 산학협력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집중학기제를 도입하고, 창의설계·디자인씽킹·캡스톤디자인 등 차별화된 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인재 양성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예체능계열 학과의 모범적 산학협력 프로그램

대구대 시각디자인과는 그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모범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프로젝트는 이를 입증시켰다. 대구대 시각디자인과는 2008년부터 진행해오던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심볼·로고 디자인·워드마크·기업 캐릭터 제작 사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니즈가 적극 반영된 선물용 디자인 패키지를 마련했다. 디자인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상품과 회사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이었으며,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배운 디자



▲ 24시간 개방 전공실기실 4실 구축 선후배 멘토, 멘티 구성 과외시간 실습 활동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 분야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은 물론
8개 작품이 수상을
휩쓰는가 하면,
취업률이 매년
75%에 육박한다.



▲ 4학년 졸업작품전시장에서 관련기업 대표 및 임원 초청 실무면접

인 공부가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야말로 대학과 지역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길'을 실천할 수 있었다.

선물용 디자인 패키지를 제작한 강진주 학생(시각디자인학과 4년)은 “제품의 콘셉트부터 포장디자인까지 제품 디자인 전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수태 책임 지도교수 역시 “지역 중소기업들은 디자인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은 현장 참여를 통해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앞으로도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 위주의 현장수업을 확대해 대학과 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실무중심교육

이러한 저력은 수업 커리큘럼에서도 드러난다.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 작업을 해주는 '기업디자인실무' 수업은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학생들은 콘셉트 미팅·피드백 과정·의견협의과정 등을 통해 기업 CI를 제작한다.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지도교수는 물론 디자인업체 CEO들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간단한 심사평뿐만 아니라 좋았던 점과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까지 꼼꼼하게 피드백한다.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줌으로써 현장 실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다. 발표회 자체가 하나의 실무경험이 되는 셈이다.




▲ 디자인기업대표 겸임교수의 전공실기실 수업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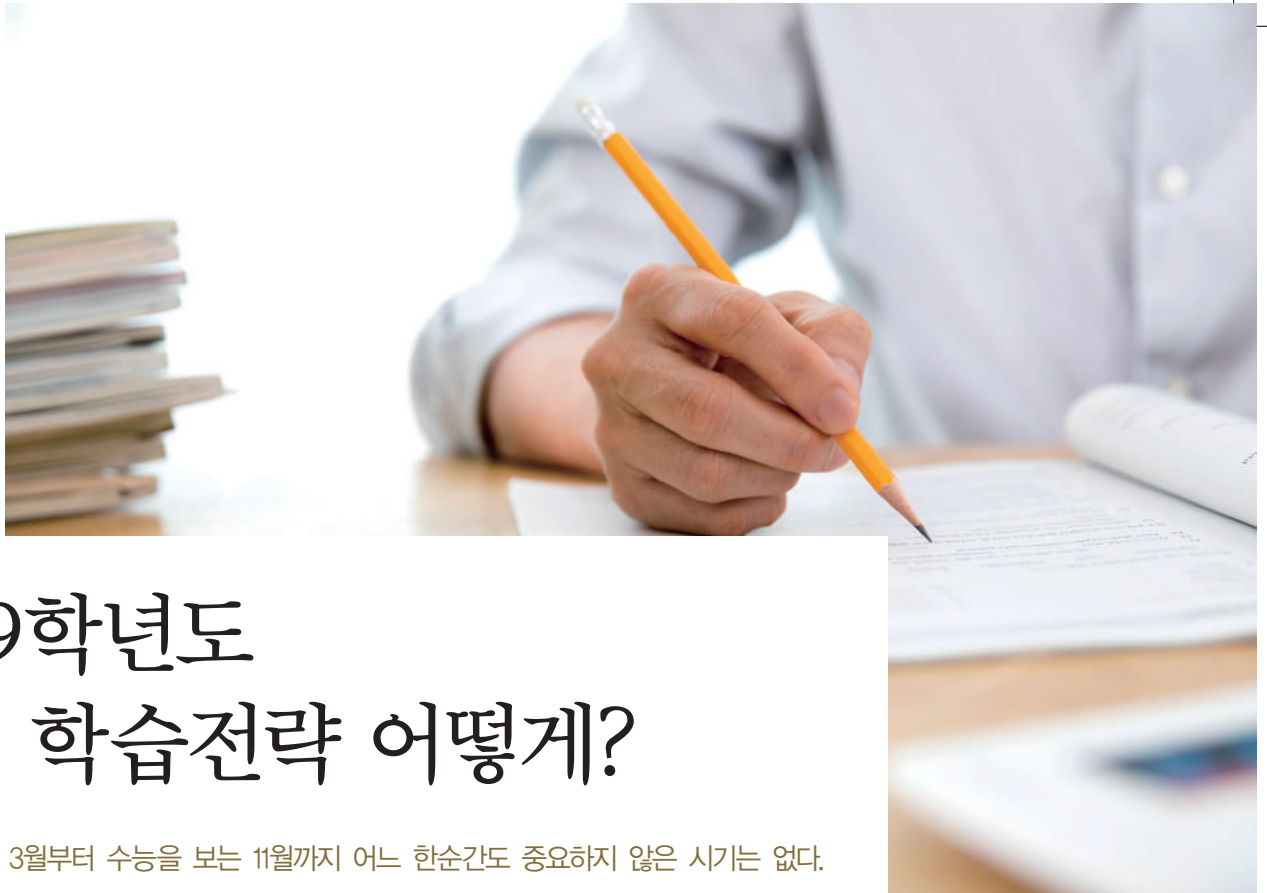
시각디자인과의
졸업작품전은
취업박람회와
결합되어 있다.
디자인 업체들은
실제 작품을 보며
취업상담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한 자리에서
채용 및 면접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매체 광고나 캘린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그래픽 디자인 수업’은 공모전을 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업이다. 실제로 2017년 ‘제3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현지(3학년)·양은정(3학년)씨 역시 이 수업을 통해 공모전을 준비했다. 이 교수는 “심도 있는 실무중심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실전처럼 과제를 수행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면서 “그 결과 뛰어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며 흐뭇해했다. 최 씨도 “우리 학과의 최대 경쟁력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분위기”라며 엄지를 추켜올렸다. 매년 ‘대한민국디자인

인전람회’ 등의 공모전에서 수십 점씩 수상작을 배출하며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졸업작품전 역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대구대 시각디자인과의 졸업작품전은 단순한 졸업작품전시회가 아니다. 취업박람회와 결합되어 있다. 디자인 업체들은 회사홍보와 함께 학생들의 실제 작품을 보며 취업상담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한 자리에서 여러 회사의 채용 및 면접기회를 얻을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취업률로 나타난다. 2014년 79.3%를 기록하며 전국 4년제 대학 67개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매년 75%를 웃도는 취업률로 지역 대학의 한계를 넘어 실무중심의 특성화 명문학과로 전국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제 비슷비슷한 콘텐츠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철저히 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대구대 시각디자인과는 예체능계열 학과도 충분히 산학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산학융합 생태계 조성’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인재 양성·기술혁신·지역사회 기여에 최적화된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돌풍’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한다. 



2019학년도 대입 학습전략 어떻게?

고3의 시작인 3월부터 수능을 보는 11월까지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입시전문가들은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목표대학을 결정하여 자신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학습전략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별 전형에 파악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수능까지 어떤 학습전략이 필요하고, 또 어떤 대입 지원전략이 요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글_ 편집부

실전 학습하기(3월~5월)

고3 첫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1학기 중간고사가 진행된다. 3월 학력평가의 경우 고3 시기의 첫 번째 평가이다 보니 학생들의 기대가 높아 상대적 실망도 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수능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취약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세워 이후의 학습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자.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은 모든 전형에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성적관리에 힘써야 한다. 학력평가와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자. 오답노트를 통해 취약 영역이나 자주 틀리는 문항 유형

을 보강하고 반복적인 학습효과로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틀린 문항과 해설을 단순 스크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틀린 문항의 이유를 기록하고 교과서를 통해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야 오답노트의 효과를 100% 볼 수 있다.

목표대학 점검하기(6월~7월)

이 시기는 현재까지의 학습결과와 성취도 등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와 1학기 기말고사도 진행되는데, 이 시험들은 향후 학습전략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는 재수생이 처음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재학생들 중에는 이를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실행한 학습계획을 점검 및 보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수시 대학별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전략 수립하기(8월)

여름은 무더운 날씨로 긴장이 풀리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다. 슬럼프나 주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되,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도 단기간에 극복하여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자기관리에 힘써야 한다.

수시모집 지원 시 6월 모의평가 성적과 학생부 성적, 대학별 고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별 전형을 파악하여 지원해야 한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부 성적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내신 반영 중심의 전형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이 고른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하여 수시에 도전하도록 하자. 단, 수시모집은 일반적으로 학생부와 대학별 고사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므로 대학별 고사가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등에도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어 수능 성적이 수시 지원전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여름 방학만으로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취약점 보완하기(9월)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이전에 치르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재수생은 물론 반수생까지 가세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자들과의 상대적 위치를 가장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그 해 수능 시험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성적이 올랐다면 수시 지원 시 정시를 염두에 둔 소신·상향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성적이 하락했다면, 자신의 취약 영역 및 목표대학 반영 영역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되, 그중에서도 반영비율 및 가중치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자.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 학생부 성적까지 반영된다. 따라서 2학기 중간고사에도 집중하여 짧은 시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학습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수능 돌입하기(10월~11월)

모의수능 학습을 마무리하고 실전 감각을 몸에 익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실전 경험이 없는 재학생들은 실전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여 실전 감각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매주 2회 이상 실전 수능과 똑같은 모의고사를 치러 보는 것이 좋다. 그동안 작성해 온 오답노트를 점검하면서 취약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특히 상위권 학생이라면 포기 과목으로 인해 목표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끝까지 꾸준하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전략 완료하기(12월~1월)

성적 발표 후에는 자신의 수능 성적을 꼼꼼히 분석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 점수를 산출한 후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대학별 전형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단순 합산점수보다는 대학별 환산점수로 변환하고, 본인의 위치까지도 고려하여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세상을 품어 내일을 달려라



김 율
용인대학교

“순간을 넘어서라. 지금의 너는 5분 전의 너와는 달라야 한다. 그게 네가 살아남는 방법이란다.” 작년 한 해 동안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에서 팀장으로 활동했을 때, 멘토에게 들었던 말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업계에 종사하는 멘토에게 체계적인 컨설팅과 경험을 쌓았다. 수료한지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순간의 기억들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다.

작은 나비의 위대한 날갯짓

나의 학창시절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난치성 건선으로 손과 팔 등의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 경계 활동을 못하셨던 어머니의 병환은 나날이 깊어졌다. 어린 우리 남매를 양육하기 위해 공업용 화학 세제를 사용하는 굿은일이 화근이었다. 또한 선천적으로 무릎 연골이 과열된 동생과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소통이 힘들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던 나에게 세상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그러던 중 2005년, SBS의 ‘아름다운 가게’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방송을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나의 삶을 송두리

째 바꿔버린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다. 방송이 나간 직후, 학교 친구들의 조롱을 정면으로 받았지만 한 선생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생님은 “부딪혀라, 안될게 뭐냐, 난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덕분에 조금씩 말문이 트이며 친구들이 생겼고,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갔을 때는 수치스럽고 창피했지만 이내 그 방송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송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나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래서 방송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누군가를 동하게 하는 선한 기획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세상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

청년,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따뜻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항상 고민했으며 ‘세상을 품어 내일을 달려라’라는 좌우명을 만들었다. 사람들로 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더욱 많은 것을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단 한 번도 고등학생 때 했던 다짐을 잊지 않았고 모교에서 교육봉사활동

을 했다. 꿈과 적성을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내가 가진 꿈, 가치관 등을 'Be a Design!'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고, 타인을 아우를 수 있는 발화점을 제시해 주었다. 작은 노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보람을 느꼈다.

또한 매달 정부 보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내린 결론은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였다. 그때부터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어진 것을 즐기기 위해 노력했다. 매 학기 받았던 국가장학금 또한 큰 도움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학내 전공수업 과제로 기획서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면 남들보다 다르게 쓰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고,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4점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4학년 1학기에는 4.5 만점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장학금 덕분에 더욱 학업에 집중하며 졸업 후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좋아하는 것에 부딪히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진로에 대한 갈등과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뮤지컬 '빨래' 공연을 보고 나의 삶과 가치관을 반영한 따스한 문화를 기획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공연예술에 대해 자세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 수업을 들었다. 문화콘텐츠학전공과 평소 좋아하던 분야를 살려, 장래에 문화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소외계층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푸른 등대, 지평선을 밝게 비춰준 빛

1학기를 마치고 받은 푸른등대기부장학금은 나

에게 '꿈'으로 다가왔다. 장학금으로 하여금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더욱 달려갈 수 있었고, 혹여나 쓰러져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었다. 지금은 공공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 학원을 다니거나 학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의 수술비, 치료비 등을 해결할 수 있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장학금은 단순히 돈의 의미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내일'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졸업(취업)준비생은 바다 너머 보이는 수평선과 같이 끝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푸른등대기부장학금은 마치 넓은 바다 위 돛단배처럼 세상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이정표를 제시해 준 것이다.

장학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품과 조명·동선을 마련해주었고, 내가 '선한 그릇'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담금질이었다. 좋아하는 무대 조명 중에 '스포트라이트'가 있다. 대중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어두운 무대 가운데 특정한 곳, 인물만을 비춰 강조하는 기법인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배우는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나는 이번 학기 동안 푸른등대기부장학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장학금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많은 일을 할 때에도 결코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믿을 건 돈 밖에 없다’고 믿는 당신에게

이원우
미디어펜 기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돈에 대한 격언(?)이 아주 많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런 것들이다.

“얼마 전 다녀온 해외여행은 정말 행복했다. 왜 그렇게 행복했나 했더니 1주일에 100만 원씩 썼더라.”

“만수르가 나에게 ‘네깃 게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라는 표정을 지으며 신용카드를 줬으면 좋겠다.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텐데.”

“믿을 건 돈 밖에 없다. 돈은 눈에 보이는 신(神)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모두는 학창시절 물신주의를 비판하는 도덕책으로 공부를 했었지만 졸업 이후의 인생은 물신주의의 금자탑, 돈타령의 파노라마인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의 대다수를 해결해주는 건 맞지 않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너무 교양 없어 보이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믿을 건 돈 밖에 없다’는 문장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정말 돈이란 게 그렇게 믿을만한 걸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돈만큼 못 믿을 것도 없다는 게 진실이다. 시계를 1923년으로 돌려 독일로 날아가 보자.

돈이란 정말 믿을만한 것일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베르사유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너무 교양 없어 보이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믿을 건 돈 밖에 없다’는
 문장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정말 돈이란게
 그렇게 믿을만한 걸까?

손발을 묶는다. 그런 한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린다.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든다. 애초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던 독일인들은 왜 자신들이 패전국의 수치를 경험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의 부재는 분노가 되었고, 이 분노가 결국 나중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독일인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것은 물가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었다.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 올라가는 현상을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데 독일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돈은 휴지조각이 됐다. 소 한 마리 값을 은행에 저축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그 돈으로 소는커녕 생선 한 마리도 못 사

는 상황이 펼쳐졌다. 사과 하나를 사려면 수억 마르크를 수레에 싣고 시장에 가야만 했다. 그러면 도둑들은 돈은 치워버리고 수레만 훔쳐 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건 돈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허나 그때와 같은 상황이 미래에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구태의연한 얘기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방 날렸다고 가정해 보자. 저쪽은 ‘최종병기’인 핵을 가졌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한국 사회를 삼켜버릴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돈은 달러나 엔화같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도 아니다. 세종대왕님 얼굴 그려진 지폐가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믿을 건 돈 밖에 없는 줄 알았던’ 과거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평화가 있어야 돈도 있다

물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믿을 건 돈 밖에 없어 보이는 지금은 그래도 ‘평화의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는 있다. 사실 돈이라는 건 중잇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돈이 힘을 발휘하는 건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정부가 제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왜 꼭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증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갈수록 삶이 팍팍해 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냉정한 질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자. 적어도 우리에게 ‘믿을 건 돈 밖에 없는 것 같은’ 착시를 허락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



고등교육 장학지원 발전 위해 유럽과 협력체계 구축 및 아시아협의체 구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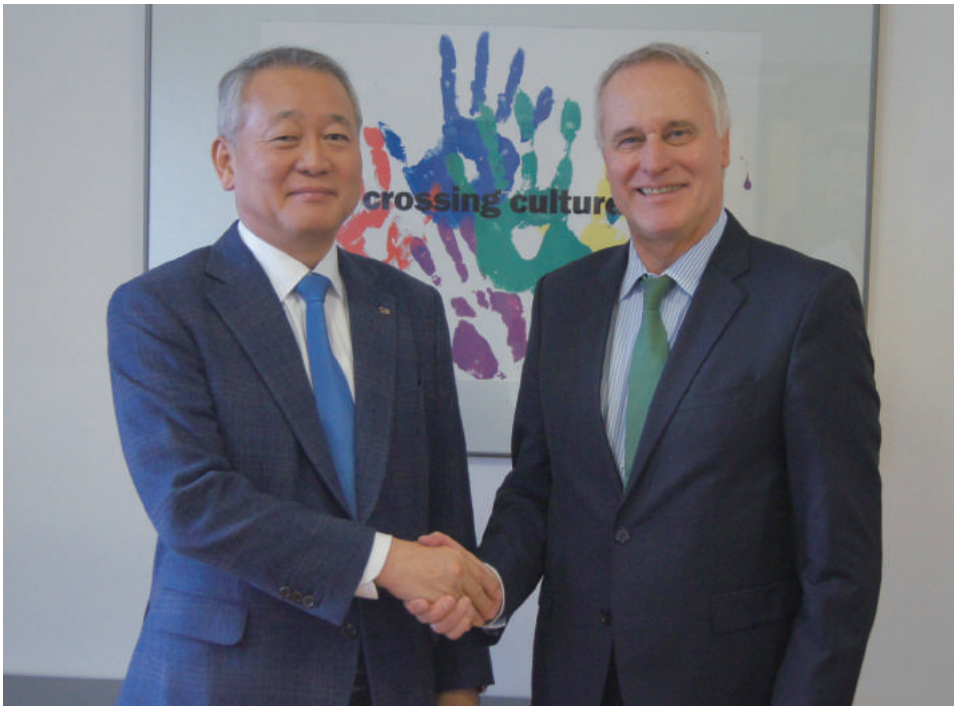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지난 1월 24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학생지원기구(Deutsches Studentenwerk, 이하 DSW)를 방문한데 이어 2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국립학생장학센터(Centre National des Oe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이하 CNOUS)를 찾아 고등교육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DSW의 공식 초청을 받은 재단은 유럽의 학생지원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제도 및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여 재단이 추진 중인 대학생 연합생활관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발굴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하였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DSW 및 CNOUS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에는 양국 기관 간 제도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외에 공동연구 진행, 기숙사 설계 및 운영 노하우 공유, 상호 직원 연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 간 교류 협약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15개국 이상 고등교육 지원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유럽학생지원협회(European Council for Student Affairs, 이하 ECSTA)를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대륙에 위치한 고등교육 지원 전문기관 간 교류 협력과 소통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ECSTA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에 유럽과 아시아 협의체 간 협력을 제안한 결과 양 대륙의 학자금 지원 전문기관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대규모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단 주도 하에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아시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왼쪽)이 독일학생지원기구를 방문하여 아힘 마이어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 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도 2017년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지난 1월 3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전국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학자금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민, 벤처기업 누구나 학자금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민간 장학재단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2,300여 종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재단은 이번에 기관명, 상품 구분, 성적 기준, 소득기준, 지원금액, 특정 자격, 선발방법 등의 항목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격주 단위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접속하여 '데이터셋 > 파일데이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정보' 검색 후 조회 또는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사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상생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 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득구간 이의신청 땐 공인인증서 지참해야

Q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A • 학자금 지원 신청에 따라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기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소득구간(분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에도 정부부처의 복지사업(기초수급자 선정,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이후 조사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 증빙이 필요하며 조사 기준에 벗어난 소득·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구간(분위)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A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득구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 소득산정 결과 통지 후 14일(통지일 제외)이내 신청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메뉴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신청인(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대학생)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는 학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궁금증이 모이는 곳이다. 고객센터에 많이 접수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